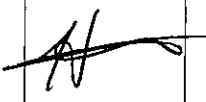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2019학년도 제2차 회의록

의장 서명


1. 회의 일시 : 2019. 08. 12(월) 15:00 ~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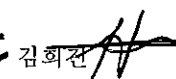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1호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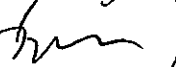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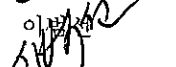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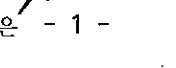
3. 회의 참석자
 - 평 의 원 (8명) : 채호석, 김희진, 성은경, 김병철, 김수진, 최서연, 이범선, 유정은
 - 불 참(3명) : 김해동, 박연관, 윤이식
 - 간 사(1명) : 엄종섭
 - 학 교(1명) : 조기석 기획처장

4. 회의 안건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건물·토지) 취득 계획
 - 적립금 사용 및 기채 신청에 관한 건
 - 기타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엄종섭 기획팀원이 재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김희진 의장이 2019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 내용
 - 1)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건물·토지) 취득 계획, 적립금 사용 및 기채 신청 관한 건
 - 조기석 기획처장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건물·토지) 취득 계획(안), 적립금 사용 및 기채 신청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함

서명 : 채호석  김희진  성은경  김병철 

김수진  최서연  이범선  유정은 

<주요 질의응답 및 의견>

- 김희진 의장 : 지난 금요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으로 논의가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오늘 회의는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및 이에 따른 기채 신청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음.
- 최서연 의원 : 현재 토지 취득 비용이 120억, 우리 대학 가용 자금이 76억 수준이라고 하면 토지를 취득하는데만 50억 규모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짐. 또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건물이 아니고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 후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용 재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함.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막대한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임. 대학차원에서 수입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불확실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자금의 1/3이상 수준으로 부채로 떠안게 된다면 우리 대학이 갚아나갈수 있을지 우려가 큼.
- 김병철 의원 : 건축기금과 교육환경개선 적립금은 유보금 명목으로 적립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보금의 용도는 교육부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유보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함.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의 목적으로 비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조기석 기획처장 : 현재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득 후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 최서연 의원 : 현재 취득하려는 부동산 물건 주변이 재개발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김병철 의원 : 우리 대학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취득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거 스마트도서관에 사이버외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용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및 개인주택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교육부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교육부 입장에서는 유보금은 교육환경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데 왜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혹시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로 비취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이렇게 된다면 향후 사이버대학이 감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김수진 의원 : 120억의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취득 목적 자체가 불분명해 보임.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대학의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수입이 발생하여 우리대학 재정에 도움이 되어 된다고 생각함. 취득 목적 자체도 고려해야 하지만 대학에서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산 취득이 과연 1순위 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김희진 의장 : 공간 확보가 1순위인지 학생을 위한 다른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김수진 의원 : 70억 대출을 받을 경우 10년 상환기준으로 매년 7.9억 정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는 대학으로 향후 입시 환경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김희진 의장 :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대학 재산인지 질의함.
- 최서연 의원 : 법인 소유로 알고 있음.
- 유정은 의원 :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이 법인 계획인지, 총장님 계획인지, 대학 차원의 계획인지 어디에서 진행된 것인지 궁금하며,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함. 대학 공간 부족 해결이 취득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이버관 공간을 한국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스마트도서관에 사이버외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지 궁금함. 우리 대학 차세대 LMS 도입 30억 투자도 힘든 상황에서 120억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김희진 의장 : 건물 신축 내용 중 건축비 30억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것인지 궁금함.
- 조기석 기획처장 : 건물을 신축할 경우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짐.
- 이범선 의원 : 제안 사유에 교수연구실, 스튜디오 등 교육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의 경우 이전인지, 추가 증축인지 모르겠으나 스튜디오만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짐.
- 최서연 의원 : 현재 우리 대학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자수입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금 76억이 투입된다면 그 상당액 만큼의 이자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김병철 의원 : 적립금으로 이자수입을 얻는것도 좋지만 교육부에서는 유보금을 많이 쌓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취득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음. 그렇다면 토지가 아닌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수입을 얻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또한, 반드시 부동산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면 기채를 발생시키지 않고 100% 자기자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최서연 의원 : 현재 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교육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 채호석 의원 : 오늘 회의 안건이 심의사항인지 의결사항인지 부터 명확하게 확인한 후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토지를 취득하는 용도가 단순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획득인지 재산의 증식 부분인지 궁금함. 또한, 가용자원을 다른곳에 사용하는 방안을 대학평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것인지 모르겠음. 추가로 예를 들어 토지를 취득한 후 4층으로 신축하여 1층은 학생복지시설, 2층은 교수연구실, 3

층은 스튜디오 등으로 사용한다 등으로 제안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며, 건물 신축에 30억은 현실적인 가격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엄중섭 간사 :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써 우리 대학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에 ‘평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사항으로 진행하려고 함.
- 유정은 의원 : 대학평의회 심의결과와 상관없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지 질의함.
- 조기석 기획처장 : 대학평의회는 심의 기구로써 의결 권한이 없는 상황임. 다만, 대학평의회 심의 결과는 향후 이사회 의결 및 교육부 승인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사료됨.
- 성은경 의원 : 대학평의회에서 반대의견으로 정해져도 이사회 안건으로 상신이 되는지 질의함.
- 조기석 기획처장 : 대학평의회가 의결 기구이면서 반대의견으로 정해진다고 하면 관련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신할 수 없으나, 대학평의회가 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안건으로 상신이 가능함.
- 김희진 의장 :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우리 대학이 100% 사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 조기석 기획처장 : 현재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정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 김수진 의원 :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후에 1층은 학생복지시설, 2층은 스튜디오 용도, 3층은 교수연구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수준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대학평의회에서도 의견을 좀더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 채호석 의원 : 이번 안건 관련 대학평의회 회의는 한번만 진행되는것인지 질의함.
- 김수진 의원 : 안건에 대하여 의결이 아닌 심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반영된 후 다시 개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김희진 의장 : 만약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재산 권리 주체는 법인인데 왜 우리 대학이 100%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함. 법인에 재산이 귀속이 되는것이라면 법인에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모두 충당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함.
- 최서연 의원 : 계획(안)대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재무건전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유정은 의원 : 현재 계획(안)대로 추진한다면 우리 대학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대학평의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정한 후 해당 의견을 회의록에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함.

- 김희진 의장 : 총학생회의 의견은 오늘 개진된 의견들이 있는 그대로 회의록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해석되며 해당 의견에 찬성함.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분들의 의견은 모르겠으나 오늘 참석하신 의원분들은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이범선 의원 : 학교가 외형적인 성장을 하거나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만, 의원분들께서 의견을 주신바와 같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은경 의원 : 우리 대학이 사이버관 준공하기까지도 힘들었지만, 교사 확보 이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공 이후에도 계속 힘든 상황이 이어졌음. 과거를 비추어 봤을 때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닐뿐더러 막대한 비용의 기채까지 사용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다고 하는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김희진 의장 : 대학평의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원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분들께서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주신 부분이 이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함
- 채호석 의원 : 사이버외대의 입시 현황, 자산 현황, 사이버외대와 법인 간의 관계 등 정확한 현황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안건을 심의하기에는 오늘 회의 자료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추후 동일한 안건으로 회의 진행이 가능하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으로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김희진 의장 :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계획(안) 내용 중 첫 번째는 필요자금, 두 번째는 제안사유, 세 번째는 목적 등 모든 부분에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아졌음. 자료가 보완이 되고 팩트가 크로스 체크된 후에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음.
- 김병철 의원 : 현재 신성장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차라리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수입을 올리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짐.

7. 폐회선언

- 김희진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